

'경복궁 선원전' 편액, 고국 품으로

국가유산청, 라이엇게임즈 후원으로 일본에서 100년 만에 환수... 27일 첫 공개 예정

경복궁 전각 선원전의 편액이 일본에서 10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왔다.

국가유산청과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은 지난해 라이엇게임즈의 후원을 받아 경복궁 선원전(璿源殿)에 걸렸던 것으로 추정되는 편액을 환수했다고 3일 밝혔다. 환수된 편액은 3.1절을 앞두고 이달 27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언론에 최초로 공개될 예정이다.

선원전은 조선시대 궁궐 내에서 역대 왕들의 어진을 봉안하고 의례를 지내던 신성한 공간이었다. 편액은 종이나 비단, 날뻗지 등에 그림을 그리거나 글씨를 쓴 액자를 일컫는다. 보통 방 안이나 문 위에 걸어 두는데 건물의 규모와 격식에 맞게 다양하게 제작됐다.

이번에 고국 땅을 밟게 된 편액은 가로 312cm, 세로 140cm 크기로, '육의 근원'이라는 뜻을 가진 '선원(璿源) 글자가 검은 바탕에 금빛으로 새겨져 있다.

국가유산청과 재단은 전문가 평가와 문헌 조사 등을 거쳐 이 편액이 조선시대 궁궐 안에서 가장 신성한 공간으로 여겨졌던 선원전 편액이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선 시대 선원전은 경복궁, 창덕궁, 지금의 덕수궁인 경운궁에 있었다. 임금이 거처를 옮길 때는 역대 왕들의 어진도 옮겨야 해서 여러 궁에 두게 된 것이다.

조선 최초 선원전 경복궁 선원전은 1444년 창건되고 임진왜란 때 전소됐다. 100여 년 동안 궁궐 안에 선원전을 건립하지 못하다가 1695년 이르러 창덕궁에 선원전이 마련됐다.

고종 때 경복궁이 재건되면서 선원전 기능도 경복궁으로 넘어가게 됐다. '경복궁영건일기'에 따르면 1865년부터 경복궁을 다시 지어 1888년 경복궁에 선원전이 재건됐다.

1897년부터 고종이 경운궁에 머무르자 경운궁에도 선원전이 세워졌다. 고종이 경복궁에 머물 땐 경복궁으로, 창덕궁에 머물 땐 창덕궁으로 어진도 따라 옮겨졌다.

대한제국 시기에는 경복궁, 창덕궁, 경운궁의 선원전 모두 그 기능을 담당했다. 경운궁 선원전은 '진전중건도감의궤'의 기록에 따르면 1900년 화재로 소실된 후 1901년 재건됐다. 이



경복궁 선원전(璿源殿) 편액 장면

(사진=국가유산청 제공)

후 경운궁 선원전은 1921년 창덕궁으로 옮겨졌고, 이것이 현재 창덕궁(신)선원전이다.

경복궁 선원전은 일제강점기에 헐려서 박문사(博文寺)를 짓는 데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창덕궁에만 두 곳의 선원전이 남아 있다.

국가유산청은 "이번에 환수된 유물은 각 궁궐에서의 선원전 건립 및 소실 관련 정황과 관련 문헌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재건(1888년) 경복궁 선원전'에 걸렸던 편액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창건(1444년) 경복궁 선원전'과 '창건(1897년) 경운궁 선원전'은 화재로 소실됐다. 창덕궁(신)선원전은 '재건(1901년) 경운궁 선원전'이 옮겨져 세워진 것으로 현재 편액이 남아 있다.

국가유산청은 창덕궁(구)선원전에는 현재 편액이 남아있지 않으나, 현장 조사를 통해 편액 거치용 철물 흔적 위치와 환수된 편액 크기를 대조한 결과 이번에 환수한 유물을 거치할 수 있는 구조임을 확인했다.

국가유산청은 경복궁 선원전 편액은 조선총독부 초대 총독을 지낸 테라우치 마사타케가

1916년 한국을 떠나면서 일본으로 가져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편액을 보관하던 건물이 태풍으로 파괴되면서 건물 철거 작업에 참여한 건설업자에 의해 수거됐으며, 그동안 이 업자의 가족이 유물을 보관해 오다 2023년 일본의 한 고미술품 경매에 나와 매입에 본격 착수하게 됐다.

국가유산청과 재단은 환수 과정과 관련해 "재단과 소장자 측에 조선 왕실의 문화유산인 '경복궁 선원전 편액'이 반드시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야 하는 당위성을 전달하고 적극적으로 설득하며 협상한 끝에 국내로 무사히 들여올 수 있었다"고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이번에 환수된 '경복궁 선원전 편액'을 오는 27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언론에 최초로 공개할 예정이다.

국가유산청은 "환수된 편액은 왕실 관련 유물을 소관하는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되어 체계적으로 관리될 것"이라며 "해당 유물이 건축·서예·공예가 접목된 종합 예술 작품이란 점에서 향후 학술연구·전시 등에 다양하게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국립한글박물관, 화재 응급 복구·유산 안전관리 대책 시행

국립한글박물관은 지난 1일 박물관 증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화재에 따른 응급 복구와 국가유산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국립한글박물관에 따르면 이번 화재로 3층 한글놀이터(약 576㎡)와 복도 등이 피해를 입었다. 현재까지 피해를 본 유물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박물관은 국가지정문화유산 26건 257점을 화재 당일 국립중앙박물관 수장고로 이동·격납 조치한 바 있다.

현재 수장고에 보관·관리 중인 8만여 점의 소장 자료도 소산계획을 수립하고 국립중앙박물관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향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관리자

를 선임·배치하고 안전교육 및 현장점검 강화 등 대책도 마련한다.

이울러 박물관 교육공간 및 증축공사는 화재 원인 조사 후 외부 전문가에서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에 따라 공사 범위 및 일정을 결정할 계획이다.

강정원 한글박물관장은 "이번 화재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화재 피해 수습과 문화유산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피카소 도자 작품, 완주서 만난다

삼례문화예술촌서 '20세기 거장 피카소, 흙과 불로 완성한 예술' 전시

완주군이 명품관광지 삼례문화예술촌에서 '20세기 거장 피카소, 흙과 불로 완성한 예술' 피카소 진품 도자 전시를 열고 있다.

이번 전시는 완주군 삼례문화예술촌이 전북특별자치도 명품관광지 조성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것으로 2025년~2028년까지 4개년간 도비 총 26억 원을 지원받았다.

첫 번째 사업으로 삼례문화예술촌은 세계적인 작가인 파블로 피카소의 도예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주요 화가 중 하나로 평가 받는 파블로 피카소는 회화뿐만이 아니라 조각, 판화, 도자를 넘나들며 5만여 점의 작품을 남겼다.

이번 전시 '20세기 거장 피카소, 흙과 불로 완성한 예술'에서는 피카소의 작품 중에서도 그동안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도자기 작품과 그의 일상을 담은 사진을 전시해 피카소의 독창성과 다재다능한 면모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유히대 완주군수는 "명품관광지인 삼례문화예술촌이 이번 전시를 통하여 체류형관광지로 거듭나길 바란다"며 "완주군민과 삼



례문화예술촌을 찾는 많은 방문객분들에게 세계적 작가의 작품을 생생하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전시는 오는 4월 24일까지 무료로 관람 가능하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매주 월요일 휴관한다.

전시 작품 저작권 관계로 전시실 내부 촬영(사진, 영상 등)은 철저히 제한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삼례문화예술촌 홈페이지 또는 전화(063-290-3862~3)로 문의 가능하다. /원주=염재복 기자



최근 완주문화재단 커뮤니티실에서 '완주 공예 네트워크 사전 간담회'가 열렸다.

완주문화재단, 완주 공예 네트워크 사전 간담회 개최

최근 완주문화재단 커뮤니티실에서 '완주 공예 네트워크 사전 간담회'가 열렸다. 완주문화재단은 지역 공예인과의 협력을 통한 공예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완주군 심부건 의원과 함께 이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2024년 심부건 의원의 발의를 통해 제정된 '완주군 공예산업 활성화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바탕으로 완주 공예인의 활동을 지원하고, 향후 정책 및 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심부건 의원은 "공예인들이 안정적으로 창작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과 협력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며, "완주군에 기반을 둔 공예인들의 활동 영역이 넓

어질 수 있도록 조례와 행정적 지원을 통해 공예산업의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역 공예인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가칭)완주공예인협회 설립의 필요성과 방향성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진정욱 작가는 "완주공예인협회가 발족된다면 공예인을 대표하는 조직으로 공예 관련 정책 제안과 공예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창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협회가 지역 공예인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협력적이고 체계적인 활동 기반을 만들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원주=염재복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형회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일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정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각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이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툇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라고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더하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글=문화재청 제공>

전주매일 캠페인